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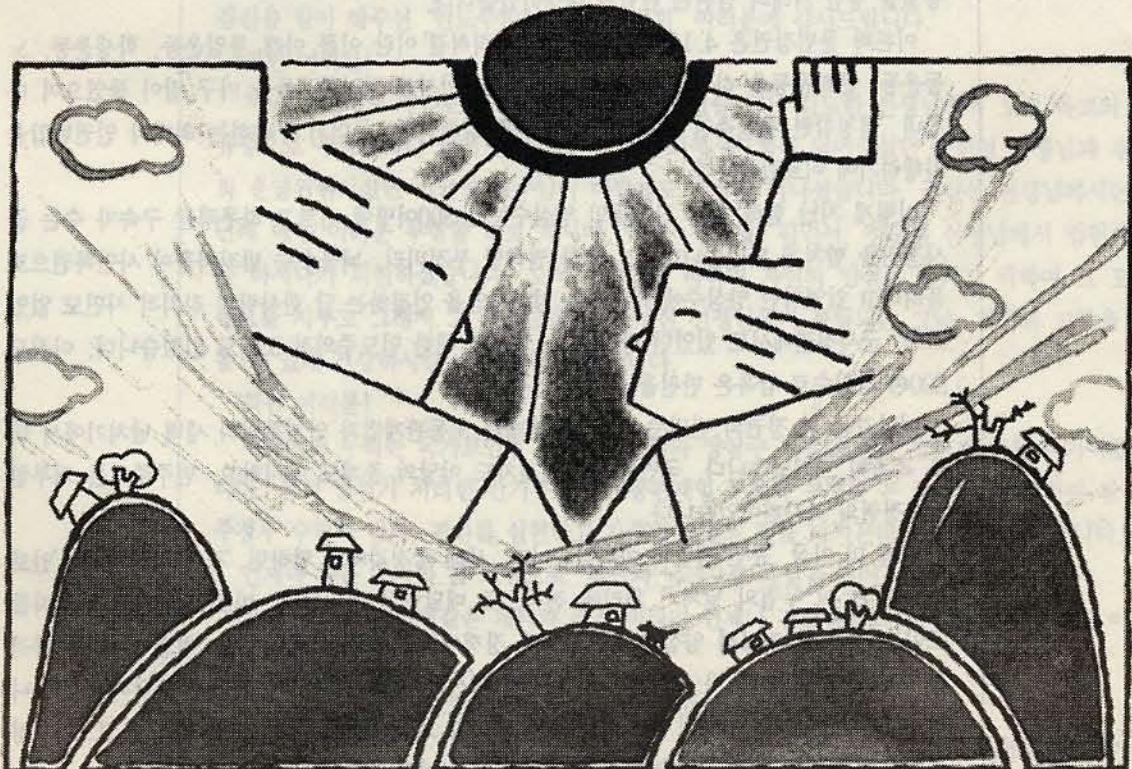
통권 63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1997. 1. 11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복 많이 받으세

더불어 여는 새해





참민주 실현과 민족대단결을 다지는 해로

19 97년이 밝았습니다.

짓밟힌 인권, 거부당한 민주주의, 상처입은 민족존엄, 그 엄청난 탄압과 분노와 좌절 딛고 참민주 실현과 인권보장, 민족적 염원을 이루어야 할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지난 한해, 많은 어려움에서도 고난 받는 양심수 석방과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자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4년전 우리모두의 새해 소망은 30년 군사폭정을 끝장내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자유와 민주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정부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양심수 없는 세상, 통일된 세상,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4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꿈으로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화를 외치고 일등국가를 말하며 OECD에 가입, 선진국가 대열에 들어섰으며 자랑하고 있지만 지난해 이땅에서 벌어진 인권현실은 참담할 정도였고 형식적 민주주의마저도 무참히 짓밟혔으며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향한 겨레의 염원은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른바 문민정권은 4.11 총선 뒤 '좌익세력척결' 이란 이름 아래 통일운동, 학생운동, 노동운동, 문화운동을 하는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인사와 청년학생들을 마구 잡아 들였으며 마침내 '범청학련 통일축전' 참가 학생 모두를 강제연행, 무더기 구속하는 최대의 인권탄압을 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해 동안 잡아들인 양심수는 1,300여명에 이르고 하루평균 구속자 수는 군사정권을 뺏치게 되었습니다. 그 숱한 권력형 부정비리, 뇌물수수 범죄자들이 사면복권으로 풀려나고 있었지만 양심수에 대해서는 양심수임을 인정하는 단 한사람의 정치적 사면도 없었으며, 군사정권에서도 있었던 병약자, 노약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조처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800여 양심수로 감옥은 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 행패는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새벽 날치기에서 더욱 똑똑히 드러났습니다. 국민의사도 법절차도 야당의 존재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거부한 군사정권의 복사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문민' 정권이 아니었습니다. 새해 국정과제로 말하던 '경제 살리기' 와 '안보 다지기'는 이 두법의 날치기 처리에 전적으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바로 노동자의 허리띠를 조이는 것이고, 진보적 양심세력과 정치적 경쟁세력을 철저히 묶어둔채 '정권 안보'를 하려는 속셈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만과 독선은 지금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이 이 두 법의 무효화 싸움에 나섰고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으며 '정권퇴진' 운동으로 변지고 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두텁게 얹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잠수함 사건 '유감' 표명과 유해 송환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은 무엇보다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푸는 열쇠는 여전히 남북이 합의한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합의서 정신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그리고 이념과 체제를 넘어 민족적 대단결로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남북 대결과 군비 경쟁을 그만 두고, 이땅을 넘보는 주변국에 대항할 남북공조를 이루어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잇단 공안정국 속에 많은 양심수가 구속되면서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졌던 한해였습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이렇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사람일 때는 작은 힘이었지만 여럿이 함께 할 때 그것은 산술적 크기를 넘어 더 큰 힘과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양심수의 석방과 후원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 정의를 지켜나가는 양심세력으로 인권을 지켜나가는 파수병으로, 역사를 바로 세워 나갈 일꾼으로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안 한파 속에서 더욱 뜨겁게 성원하셨고, 목요집회, 양심수 석방 캠페인, 민가협 장터,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행사 등에 헌신 다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몇 년째 무연고 장기수와 양심수 자녀돕기에 거레의 정담아 보내주시는 위싱턴 수도장로교회 성원 여러분께 특히 감사드리고 새길교회, 동대문 감리교회 성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출소장기수들의 구강검진과 치료, 보철을 93년에 이어 또 해주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여러분과, 민가협 어머니들의 종합검진을 맡아 해주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지난 한해에도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김도한 선생님께서 오랜 육고의 후유증으로 투병하시다 끝내 운명하셨고, 후원회에 큰 힘이 되어주셨던 문한영 선생님과 후원회 운영위원이셨던 이균영 교수님이 아깝게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권양섭 선생님께서는 2년째 매우 어려운 투병을 하고 계시며, 이종, 유운형, 김인서, 정순택 선생님께서 입원치료를 하시다가 퇴원하셨습니다. 오직 통일만을 바라며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그 오랜 육고를 치루고 그래서 그 후유증을 앓고 계신 선생님들이 통일되는 그날, 가족과 고향을 찾을 수 있게 건강하시길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는 국가보안법 등 악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운동을 힘있게 펼쳐 나가야겠습니다. 특히 날치기 처리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무효화 투쟁을 온 국민과 함께 하며 참 민주정부 수립과 정의, 평화를 실현하고 자주와 통일의 길을 다지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높은 궁지와 큰 희망으로, 확신과 낙관으로 새날을 열어 나갑시다.

회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채찍과 격려 바라며 언제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 빌겠습니다.

1997. 새해 아침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권 오 현

‘양심수 없는 세상’ 을 …

신창균(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또 한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양심수 후원사업과 통일을 위해 한결같이 애쓰고 계시는 양심수후원회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새해에도 이 나라 인권실현과 양심수 석방운동에 더 많은 일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한 해동안에도 많은 양심수가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문민정권이라면 갇혀 있는 양심수도 모두 내놓아야 하고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을 철폐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지난해 말에도 집권당에 의해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이 날치기 처리로 군사정권과 다름없는 독선과 반민주행태가 자행되었습니다.

양심수들은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인데 지성인이라는 자들이 호신책으로 침묵한다면 이 땅의 정의가 설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이렇게 학생들을 비롯한 통일운동과 노동운동, 사회정의를 위하여 헌신하다 구속된 양심수들을 오랫동안 양심수후원회 여러분들이 석방운동하고 후원을 해오고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 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노동자의 허리띠를 졸라메는 노동관계법과 국민 모두를 탄압하려는 안기부법 날치기 처리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큰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악법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양심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우리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우리국민 모두가 날치기 처리한 두 법 무효화와 반민주 악법철폐 투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양심수후원회 활동이 더욱 활발하여 ‘양심수 없는 세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하며 94년 11월 범민련 남측본부 강희남 의장을 비롯하여 지도부가 모두 구속되었을 때 양심수후원회에서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양심수**

신창균 님은 1908년 10월 5일, 충북 음성에서 태어나 12살에 3.1운동에 참가, 일경에 끌려가 온갖 고문 후 석방된 이래 항일운동 전개. 1930년 청주시법학교 미침. 1939년 미카오로 건너가 임시정부 미카오 연락책임자 지님. 1945년 7월 옥고를 치루다 감옥에서 해방을 맞음. 1946년 한독당 연락부장, 재정위원장 지내다 1948년 김구 선생과 ‘남북 연설회의’ 남쪽 대표로 회의 참가. 1956년 조봉암 선생과 진보당 활동(재정위원장). 그과정에서 옥고를 3회 치루심. 1990년 전민련 상임의장. 1991부터 범민족대회 남측 대회장 역임(91, 92, 95, 96년도). 1995년 4월혁명상 수상. 현 정동제일교회 수석원로 장로.

‘양심’ 세력이 나설 때이다

김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양심수후원회 지도위원)

96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이 했는데도 도무지 벅찬 감회같은 것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정부와 신한국당에 의해 저질러진 안기부법, 노동관계법의 날치기 처리로 노동자들의 분노와 국민의 허탈감이 나라를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독선과 오만함이 부른 결과이다. 현 정권이 ‘문민정부’를 자처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기본권을 억누르고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법률을 강압적인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비민주적이고 반노동적인 속성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오늘 이땅에서 민족의 자주와 민족통일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을 거부하는 세력은 예속. 극우.분단.반동 세력에 든다고 봐야한다. 권력과 정치집단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현 정권도 그 앞줄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 기본 인권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억누르는 정권과 세력은 일반 민중과 노동세력에 대립하는 독재 집단임이 분명하다. 이런 권력과 세력은 민주주의와 민족의 양심을 거역하는 집단이다. 그래서 마땅히 역사의 저편으로 물러나게 해야한다. 그 책무는 민족민주 진영과 넓은 의미의 양심세력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양심수를 떠올린다. 양심수는 형벌과도 같은 무거운 짐을 걸어진 사람들이다. 실정법상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뜻에서가 아니다. 이땅의 양심수는 민족의 자주화와 민족통일의 달성 그리고 민주변혁을 위한 역사의 요청에 따라 스스로를 내던진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양심수는 역사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안은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양심수를 후원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지난날 양심수였거나 앞으로 양심수가 될 수 있거나 또는 양심수의 행동과 처지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이다. 말하자면 양심수와 한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후원회가 하는 일이 양심수에 대한 단순한 후원일 수 만은 없다. 그것은 말 그대로 ‘민주화 실천’이며 민족자주를 이룩하고 민족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소중한 노력의 한 가닥이다. 양심수후원회 활동은 곧 민족민주운동의 추진력이다. 양심세력의 굳건한 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배반의 시대’에 양심세력이 짊어진 짐은 실로 무거운 편이다. 역사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용기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어느 시대 어느 곳을 막론하고 양심세력의 행동양식은 암흑의 역사 속에서 더욱 돋보이게 마련이다. 오늘 이땅의 어두운 현실에 비추어, 양심세력의 용기있는 실천이 미래를 열어갈 등불 구실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양심세력이 나설 때이다. **양심수**

감옥에서 온 새해인사

한 해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네요. 많이 힘드셨지요? 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식전에 단전호흡과 체조를 하는데 그것이 건강관리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징역을 사니까 이제 自由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하겠는가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뜻깊게 대의를 추구하며 살면서도 즐거움과 아기자기한 재미를 갖고 사는 연구를 많이 해보았지요. 사형수 생활을 거치면서 삶의 畏敬을 갖게 되고 오랜 세월의 징역을 거치면서 자유로운 삶의 충실히과 복을 연구하게 되네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성만(전주, 구미유학생 사건)

민 가협이 사라지는 날까지 우리 앞에 놓인 이 괴로운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 편에 있다는 것을 믿고 위안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요새 '불행으로 행복한 자'가 되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민가협 식구들 모두 건승 하시기 기원합니다.

강희남(성동,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나 무나도 어려운 한해였기에 여러분의 노고에 더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금년에는 여러분이 소원이 꼭 이루어져 잔치를 차려 기쁨을 드리고 싶었는데……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날의 기쁨은 더 크리라는 희망속에 새해를 더 굳세게 살아갑니다. 뜨거운 새해 인사 올립니다.

김동기(광주, 32년째 구금중)

지 금처럼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 갇혀있는 우리를 모두한테 헌신적으로 애쓰는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아직 젊고 또 징역을 쥐꼬리만 하게 밟았으니 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여러분에 훌어져 삽사십년 넘게 갇혀있는 장기수 선생님들한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새해에는 어서 육문을 나서 양심수후원회 회원으로 가입도 해야겠지요.

박현주(마산, 광주전남연합 교육국장)

지 난해 아래 그 바쁘신 중에도 귀한 보살핌 주시니 감사하온 마음 형언키 어렵습니다. 저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오며 앞으로도 이기고 또 이겨나가려 합니다.

박정희(대구, 외국어대 사학과 교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남지만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이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합니다. 어려울수록 희망이 갖는 가치는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찬 소식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박홍순(인동, 사노맹 사건)

지 난 50년이 그랬듯이 분단조국의 을 한해 역시 예외없이 어지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그저 말없이 뚜벅뚜벅 제갈길을 가는 소걸음처럼 우리들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걸음에 발걸음을 못 맞출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이경섭(전주, 민애전 사건)

다

디간 세월을 탓도 했었습니다. 세월이 악이라고 오늘을 달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금 생각하니 거듭되는 새해라는게 만들어 간직하기보다 잊어지고 없어진게 많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소중히 만들어 간직하신게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민족과 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간힌자를 위해 힘써 일하시는 여러분께 존경과 신뢰로써 새해 인사드립니다.

양희철(광주, 35년째 구금중)

탈

냉전의 세계조류속에서 끝내에 의존하는 민족의 羞恥가 하루속히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紙上을 통해 수고하시는 모습 보면서 늘 감사하며 삽니다.

민가협 모든 식구들 건강하시고 승리하시는 해 되도록 빌며.

김낙중(광주,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한

해를 돌이켜보며 그동안 도움주신 민가협 식구들을 생각해 봅니다.

한해동안 쉬지 않고 우리사회가 거둬내야 할 보수와 반지성, 비이성의 벽을 허무는 타종으로 어두운 신새벽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건강과 평온함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이윤정(청주, 광주시의회 의원)

평

화와 민족대단결의 해로 삼으려 했던 병자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다른 해보다도 어머님들의 가슴에 더 많은 피멍들이 맷하고 모정을 넘어서 사랑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만큼이나 분노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 마음아픔과 설움들이 결국에는 한데로 모아져 더욱 큰 힘으로 '양심'의 승리를 맞아오리라는 기대와 믿음으로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를 맞고자 합니다. 고난의 역사속에서 이 땅의 모든 아들딸과 함께 하시려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깊이 받아안고 옥중에서나마 더욱 건강하고 겸손한 조국사람의 도를 깨우쳐 가렵니다.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 항상 건강하기고 어머니들과 가족들의 염원인 '양심의 자유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서영완(충천, 충남대 활동가조직 사건)

多

事多難이라는 말로밖에 표현못할 丙子年도 분단의 상처를 한껏 벌리고 이땅의 천박한 理性, 뒤틀린 良心, 그리고 끝간데 모를 物神性만 새삼 드러낸채 마침내 歷史가 되려고 합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라니 불모의 96년만큼이나 오히려 도드라지고 환한 희망하나 새해엔 자라나 길 기대해 봅니다. 丁丑年에는 소처럼 더디더라도 쉼없는 걸음으로 산을 뚫기고 강을 바꾸는 나날이 되어 날마다 통일이 씨줄이 되고 평화가 날줄로 민족의 앞날을 엮어가길 꿈꿔보구요. 그 희망과 꿈으로 열린 길에 貢者一灯으로 관심과 애정을 나눠주며 힘이되고 의지처가 되었던 양심수후 원회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97년에도 변함없이 그 불빛 환히 비춰주시길 기원하구요, 모두 건강하십시오.

강용주(안동, 구미유학생 사건)

모

두 그립고 모두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영희(전주, 방북)

모 두 건강하신지요.

온갖 심혈을 기울여 정성을 다하셔도 쉽게 빛나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속에 깊게 새겨진 민가협 애정의 각인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힘찬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정명섭(부산, 사노맹 사건)

여 이해라고 사건 없던 적이 없었지만 언제쯤 분단으로 인한 아픔들이 끝날련지.

강원도에 펼쳐졌던 한랭전선은 마치 과거속으로 시간여행하는 듯한 착각까지 일게 합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진보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큰일, 작은 일 두루두루 소망하신 것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함정희(원주, 민애전 사건)

며 구름이 뒤덮혔던 96년에도 좌절하지 않고 저희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모습 잊을수가 없습니다. 정죽년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옥중에 있는 양심수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통일의 길에 서광이 비쳐오기를 마음속으로나마 빌어봅니다.

김정원(전주, 29년째 구금중)

흐 르는 시간은 바다처럼 모든 사건과 사고, 기쁨과 슬픔들을 받아안고 잔잔한 모습으로 또 한해를 마무리짓고 있지만, 우리네 인간들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여러 과제들을 뒤에 남겨둔채 그 어느때보다 아쉬운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여린 물방울들이 모여 바위를 뚫듯이 이 나라와 민족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걷어

내고 눈부시게 톡트인 새하늘 새땅으로 나아갈 길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보살펴주신 양심수후원회 여러분들께 두루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백태웅(원주, 사노맹 사건)

올 해로 감옥에서 드리는 연하장이 5번째가 됩니다.

세상은 너무도 달라졌는데 변함없이 오히려 깊은 관심 가져주시는 민가협 식구들의 애정은 저희들을 일깨우는 새벽 친바람입니다. 얼마나 어려우신지. 새해는 모든 분의 지난한 노력이 조금은 덜어질 그런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손민영(김천, 민애전 사건)

매 번 읽지 않고 보내주시는 정성에 어떤 고마움을 표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과 어머니들께서는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실지. 부디 몸 건강하시고 자식들의 자유로움을 하루빨리 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 고향은 경북 포항입니다. 그러니까 영일만이 내다보는 바닷가입니다. 갈매기 울고 푸른 소나무가 그득한 곳, 그 고향의 아침, 그 밝은 태양을 양심수후원회 여러분과 어머니들께 바칩니다.

유성찬(경주, 구국전위 사건)

고 단하고 지친 마음으로 저무는 96년을 바라봅니다.

창살아래서 부끄러운 숨결로 다시금 밝아오려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사람은 어쩌면 내일엔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소박한 희망으로 사는 것인지 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애쓰신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양심수들에게

밝은 희망을 가득 주시길.

김대우(원주, 목포대)

보 랏빛 수건이 생각납니다.

칠천만 겨레를 피불이 식구로 여기시는 넓은 가슴에 맷힌, 피 멍든 것 같은 보랏빛. 그 멍든 자국을 자랑스럽다는 듯, 피하기보다는 앞서서 맞이하시는 모습. 그 어떤 이름으로도 대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날씨는 많이 추워져 더 깊은 겨울로 가지만 어머니들의 발걸음은 더 부산해지는 듯 합니다.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더 희어지고 주름이 늘어가는 동안 저희들의 커감을 보시고 힘내십시오.

겨우내 키워서 따스한 불햇살과 함께 힘찬 날개짓을 하는 나비처럼 저는 그런 비상을 위한 나날을 건강히 보내겠습니다. 힘찬 97년을 위하여 건강하십시오.

황인구(영등포, 동국대)

어

머니 가슴에 돌는 마지막 눈물을 지우기 위해.

올 한해 보내주신 많은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건강하게 힘 잃지 않고 남은 그날까지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지난 아픈 상처를 메우며 더 이상 양심에 대한 구속이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최창근(강릉, 민정연 사건)

늘

깊은 관심 감사합니다. 나도 함께 도울 수 있는 때가 오겠지요.

황석영(공주, 방북)

그 동안 보살펴주셨던 덕택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을 따라 세상이 험해지는 듯 하지만 양심수 없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진국(안동, 구국전위 사건)

당

온 분들의 사랑 속에서 이 해도 무사히 치러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꾸준히, 거칠없이 흘러가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더더기만 합니다. 대선을 앞둔 새해는 우리 민중의 거친 손으로 시대착오적 올무를 벗겨내어 모두가 햇빛 쏟아지는 광장에서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97년을 소망해봅니다.

차익종(청주, 사노엔 사건)

한

없이 보살피시고 아껴주신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곧은 마음 잊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하여 명검 벼리는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박경근(충성, 관주대)

그 외 많은 양심수들이

새해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심수

만나고 싶었습니다

편집부

민가협 장영숙 회원



김장.

날씨가 심상치 않게 차가워지면 으레 “김장을 하셨습니까?” 묻는 것이 우리네 첫인사다. 독일로 이민 간 한 중년여성은 겨울이 다가올수록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한다. 며칠간을 안절부절하다 나중에야 그 이유가 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사실을 깨닫고 배추대신 양배추를 사고 어렵사리 마늘과 고추가루를 구해 이국땅에서 ‘약식’으로 김장을 담갔다. 그리고 나서야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쌀독과 김장독만 그득차면 아무리 날씨가 추워져도 마음 든든해지는 우리 정서가 면 땅에 갔다고 해 틀려질 리 없는 일이다.

그렇게 본다면 민가협 사무실은 겨울준비의 절반을 끝난 셈이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복닥복닥한 신발들을 제치고 현관에서 큼직한 김장독이 겨울을 막아서고 있으니까. 그 빨간 김장독은 ‘민가협 김장’까지 함께 담그신 어머님이 어느날 혼자서 사무실까지 풍광대며 들고 오신 것. 그 김치로 끓이는 김치찌개가 기가 막힌 냄새를 풍기고 있을 즈음 어머님이 들어오셨다. 참 작은 어머님이. 그 작은 몸집 어디에 그런 통큰 사랑이 숨어 있을까 으아해 김치통과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장영숙 님은 42년생이니 올해로 쉰여섯이다. 하지 만 얼굴만 뵙고는 나이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말씀하는 모습과 목소리, 선택해 쓰는 어휘들을 들으면 정말 나이를 알 수 없다. 소녀처럼 끊다. 부

끄럼을 많이 타는 장영숙 님께 ‘어머니, 당신’ 자신에 대한 얘기를 듣기는 참 어려웠다. 장영숙 님으로 가 아닌 ‘종민이 엄마’로만 남으려 하셨기 때문이다. 겸손함이다.

“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얘기를 자꾸 쓰려고 해. 다른 훌륭한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부끄러워 죽겠네. 굳이 쓰려면 조금만 써서 조그맣게 나오게 해. 요만큼 한 다섯줄 정도만. 정말이야. 그 정도면 충분해.”

어머님이 처음 민가협에 오신 것은 여느 어머니들처럼 아들이 구속된 후이다. 성균관대 85학번인 소종민 님은 ‘노동해방문학설’ 사건으로 90년 11월 구속되었다. 아침밥을 지으며 틀어놓은 라디오 뉴스에서 아들의 이름이 나와 깜짝 놀랐지만, 확 지나가는 바람에 ‘내가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이 앞섰다. 조간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고야 어머니는 아들의 구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음이 착한 애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노동운동에 협조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누가 잡혀갈 줄 알았나?”

어머니는 아들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오려들고 민가협으로 찾아와 다른 어머니들을 만나게 되었다. 같은 아픔을 겪고 있거나. 이미 겪으신 선배 민가협 회원들을. 그 힘과 동지애.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어머니는 2년간의 아들 옥바라지를 썩썩하게(?) 하실 수 있었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엄마들이 뭐를 아나? 아들을

통해 민가협도 알게되고 담장 높다는 검찰청, 법원이라는 곳도 알게 되었지. 그리고 감옥이란 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이렇게 말하면 자식자랑이 되려나?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짚은 혈기로 한 번쯤 뛰어들 수 있는 일이 운동 아닌가? 인생은 넓은 바다에 뛰어진 조그마한 조각배 같은 것인데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쁘게 하려는 것을 바로 잡기위해 보탬이 되게 사는 것은 참 보람있는 일이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않아?"

소종민 님은 92년,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와 현재는 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 간사로 일을 하고 있다. 아들의 출소로 장영숙 님과 민가협의 끈끈한 관계는 끊길 법도 하다. 하지만 장영숙 님은 민가협에 일이 있을 적마다 나오셔서 집회도 참가하시고 텃밭에서 손수 기른 채소를 가져다 주시기도 한다. 아들을 통해 배운 '세상'을 어머니 식으로 사는 것이다.

"크게 도움되는 것은 없지만 조금이나마 협조를 해서 내힘이 보탬이 되었으면 하지.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편이 못돼. 도움을 줄지라고 내 성의껏 시간과 마음을 쓰는 거 뿐이야."

내 시간을 내는 것과 고운 마음, 요즘 같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희귀한 것 아닌가. 팽팽한 가족 이기주의가 남은 물론 자신의 삶까지도 베는 칼이 되는 세상에.

어머니의 마음은 참 깨끗하다. 대학까지 졸업한 아들이 돈 좀 척척 많이 벌어왔음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어머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신다. '돈 많으면 도둑놈밖에 더 되나?' 하시며.

하긴 아버님이 자동차 정비 사무소를 차려 사업을 하실 때도 수리비를 내지 않고 차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는 사람인데 막 조를 수가 없어' 나중에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보내주고 무작정 기다리시던 분들이니까. 적자로 정비 사무소 문을 닫을 때

까지.

아들이 출옥한 뒤에도 가끔 꿈에서 아들이 구속되는 조마조마한 꿈을 꾸어 '이제는 싫어' 하고 소리치며 잠에서 깨기도 한다는 어머니는 대선을 앞둔 요즘 다시 마음이 불안해진다.

"출옥하고 나오니까 더 불안해. 감옥에 있을 때는 차라리 염려스럽고 보고 싶을 때 달려가면 그 자리에 있으니까 보고 돌아올수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늦어도 어떤 놈이 또 길거리에서 잡아 간건 아닌가 싶고, 그 끔찍한 일을 다시 겪을 것을 생각만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막 쿵딱거리고 그래…"

97년 새해 소망이랬자 '저 안에 있는 사람 다 나오고, 더 낮고 어두운 곳에서 봉사하며 사는 것' 인욕심없는 이 소박하고 작은 어머니를 불안하게 하는 사회.

어머니와 마주 앉아 얘기하는 동안 사무실 전화는 불이 났다.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여 안양교도소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던 학생이 징벌방에 갇혔고, 이 사실을 안 어머니들이 달려 가신 것이다. '내 아들 내 놔라'를 외치며.

어머니는 요즘 나이찬 아들을 보며, 좋은 배필을어서 구하기를 바라는 것과 동시에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내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려 노력하신다.

"몇 세대를 거쳐 이루어진 부모, 자식의 인연이지만 너무 연연해 하다보면 다른 사람이 나타나. 그 옆에 서게 되면 얼마나 섭섭하고 속상하겠어. 그래서 요즘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많게 하려고 해. 이것도 아끼고 저것도 아끼고 많은 것에 사랑을 주다보면, 하나님 내 옆을 떠나도 크게 서운하지 않을 거야. 내가 사랑을 주어야 할 곳이 또 많이 기다리니까. 몇십년 함께 산 남편 마음도 다 모르는데, 앞만보고 달려가는 짚은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 물론 부모가 낳았다고 하지만 낳았다고 그 마음까지 어쩔 수는 없는 거잖아. 이제 나는 물러나 뒤에서 거름이 되줘야 하는 거지" **장영숙**



최진만

염체사니없는 짐승. 어느 산문집에서 본 말인데 하필 그를 만나러가는 전철 안에서 땀도는지 영 마뜩찮다. 하늘은 잔뜩 흐려 모처럼의 느긋한 일요일을 내버려달라고 하는 듯하다. 시큰둥하다 못해 눈조차 뜨기 싫다는 그런 인상을 준다. 혹시 남의 고요한 휴일에 돌을 던지는 것은 아닌지. 약속시간보다 한 시간 반이나 먼저 도착했다. 우리 일행은 모두 셋이었는데 한사람은 그를 알고 있었고 둘은 풍문으로만 이름을 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둘러앉아 종알종알댔다. 너는 그 사람 알아?/아니//어떻게 알아보지?/음…얼굴에 점이 하나 있어. 코옆엔가? 눈밑엔가? 입옆엔가?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잘 안나네. 되게 말랐어.//성질은 어때?/성질?/에이, 그건 건드리지말자. 우리 성질도 만만찮은데 /(일제히 고개를 끄덕끄덕)……

우리는 지금 최진만, 오정화, 최해솔, 최승아 회원가족을 대표해서 그 집의 가장을 불러내 기다리는 참이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가게를 한다는 말을 듣고 수산시장이 전네다뵈는 육교에 잇닿아 있는 2층 찻집에서 결투상대를 기다리듯 비장한 얼굴로 서성댔다. 그러나 찻집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육교를 살펴도 얼굴에 있다는 점은 알 아볼 수 없는 거리였다. 게다가 두툼한 겨울옷 때문에 아무도 말라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광명시에서 달려와 육교 밑에 차를 주차시키고 찻집으로 불쑥 들어서버렸다. 한마디로 요건 몰랐지! 하는 식이 돼버렸다. 그렇게해서 마주앉았는데 불러낸 사람이나 불려온 쪽이나 똑같이 쭈뼛거렸다. 양쪽 다 얼굴에는 웃음을 떤채 머릿속에서 궁리하기 바빴다. 불러낸 쪽은 염치불구하고

지난 역사기행 때 먹어댄 오징어회가 살아나 눈앞에서 부채춤을 추는 듯했고 불려온 쪽은 소원해진 후원회활동 시기 를 가늠하면서 이런 ‘보복성 취재’에 대해 올 것이 왔구나(!) 하며 고개를 주억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이정표로
만 인식하고 있었다. 김히 그곳에 새벽
에 나가볼 염두조차 내지 않았다. 아래
서 이참에 팔딱거리는 생선구경도 하고
시장사람들이 둘이키는 따근따근한 국
물도 먹어보고 뭣보다도 텡겨오르는 공
처럼 활기차고 가쁜한 새벽사람들의 가
쁜한 숨결을 훔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어쨌거나 궁리가 많았다. 그래서 냉큼
물었다. 그러면 평일 아침녁에 한가하
실 때 가면 어떨까요? - 글쎄요. 못오실
건 없는데 제가 알아볼 수도 없이 바쁠
텐데요./ 그럼 내일밖에 시간이 안난다
는 얘기군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10년째네요. 처음에는 소
일거리 삼아 부모님 일을 도와서 했거
든요. 뭐 한마디로 첫발을 잘못 디딘
셈이죠.(웃음). 시장이란 곳이 그래요.
그야말로 갖가지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람들
이 다 잠들었을 때 눈코뜰새 없이 바쁘
게 북적대는 곳이예요. 한참 일하는 시
간에는 사람도 못알아봐요. 어제는 거
래처 사람을 만나 11시에 집에 들어갔
거든요. 그래서 팔네미들 얼굴좀 들여
다보니까 12시 반이 됐어요. 그리고 잠
이 들었는데 생선차가 새벽 1시반이면
시장에 들어와 전화를 해요.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은 전화소리는
들었는데 못일어나고 한시간을 더 자버
렸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나가 새벽일

마치고 아침에 들어가 자는데 8시 반에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거지요. 다음부터 일요일 같 은 날은 피하세요.”

도대체 하루 일하는 시간이 열만가? 하는 생각으로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일요일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휴일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그야말로 금쪽같은 휴일이었다. 그런 하루를 낼름 베어먹 어 버린 것이다. 염체사니없는 짐승처럼. 민망해져 슬그머니 얘기를 돌렸다. 후원회에서 칭송이 자자하시더군요.

“네? 아아 그거요… 91년도 쯤에 아 는 사람 심부름으로 민가협 사무실에 잠깐 들렸어요. 갔는데 거기 참 굉장히 대요. 전화벨이 울리는데 전쟁터 총알 소리 같았어요. 얼이 다 빠질 지경이었어요. 주야(晝夜)도 가리지 않대요. 게다가 그때는 사무실에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94년도까지 일을 좀 도왔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허드렛일이었죠.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일만 한 셈이죠. 그러다가 결혼한 뒤로는 사는 일이 바빠서 소원해졌죠. 이번 시와 노래의 밤 공연때는 지방 거래처에 가는 통에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많이 힘들었을텐데… 어휴, 빨리 후원회가 계모임으로 바뀌고 민가협같이 젊은 사람들 무지하게 부려먹는 단체가 쓸모없어지는 날이 와야 하는데… 해솔이나 승아가 크면 통일돼서 군대도 잘 필요없고 맘놓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해요. 이런 단체나 모임 애길하면 옛날얘기한다고 구박이나 얻어듣는 그런 날이 와야 하는데….”

지금 시장에는 젊은 사람이 아예 없어요. 어렵고 힘들고 지저분한, 그 유명한 3D현장이라는 거죠. 사람을 구하

려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매달리다 시피 하죠. 순전히 나이드신 분들 뿐이 고 거의가 다른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예요. 어렵게들 시작하죠. 그런데 이런 시장이 사람을 소생시키죠. 고된 삶을 버팅기며 다시 살아가는 힘을 되찾게 해주죠. 그래서 실패든 뭐든 다시 부딪힐 수 있는 기운을 줘요. 시장은 힘차고 젊은 생명력이 있는 곳이지요. 그게 매력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자부심을 갖습니다.”

후원회의 수련회나 역사기행이나 행사 때마다 푸짐하게 나오던 광어회, 오징어회 등은 이런 황당할 정도의 노고와 삶의 애정을 거친 것들이었다. 나올 때마다 넘죽넘죽 먹어대기 바빴던 그것들이 원통해서 소화되지도 않고 숨어있다가 솟구치는 상상을 했다. -나는컬코 그파워로먹혀서는안될오징어회였어! 성실하게 아주성실하게단단하게먹혀야한다구! 영성하게먹었다면반칙이야! 토헤줘!

그건 그렇고 해솔이나 승아는 몹시 예쁠 모양이다. 아빠 닮았다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일어서는 자리에서 물었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형적인 장사꾼이죠, 뭐.

대답이 통쾌하다. 그래서 한 번 더 짚려본다.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는 생선이라도? - 저는 세상의 모든 생선들에 애정을 느끼죠. 그럼 생선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자기 삶에 강한 사람을 좋아하지요.

촘촘하게 아주 촘촘하게 사는 일을 엮어내고 있었다.

흐흠, 맘에 든다. 영실수

빨리 후원회가
계모임으로 바뀌고
민가협같이 젊은 사람들
무지하게 부려먹는 단체가
쓸모없어지는 날이
와야 하는데….
해솔이나 승아가 크면
통일돼서 군대도
잘 필요없고
맘놓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해요

목요일의 외침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의 고상만이라고 합니다. 지난 12월 5일 존엄한 인간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희대 수원캠퍼스 유전공학과 학생인 김형찬씨가 서울 신당동 후배 자취방에서 '이재규'라는 타인의 영장을 가지고 강제연행을 시도하는 안기부 직원 4인에 의해 폭행당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 이재규 맞지?" 라며 폭행을 자행하는 이들은 김형찬군의 왼쪽 눈 부위를 10여차례 집중구타하고 또한 방바닥에 얼굴을 밀착시킨 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구타를 가하는 등 참으로 표현하지 못할 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안기부 직원들의 폭력과 '대공분실로 연행하면 넌 죽었다고 생각해라'는 등의 갖은 협박에 두려움을 느낀 김형찬군은 석유난로를 끌어안고 분신을 시도. 현재 대치동 순화병원에서 3도 화상의 중상을 입고 입원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금번 안기부법이 개악 날치기 통과되면 서 이제 이러한 김형찬군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인권유린 행위는 안기부에 의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될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얼마전 중앙일보 등 각 신문에는 안기부 직원 중 300여명이 넘는 사람이 인권침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 고발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안기부법으로 처벌된 이들은 단 한명도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또한 단언합니다. 그 일례로 안기부는 예비군 훈련장 등에서 국가보안법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던 판사를 '좌익세력'으로 매도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보여주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받은 안기부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금번 안기부법 개악을 주도한 이가 누구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신한국당의 정형근이라는 국

회의원입니다. 정형근씨는 지난 95년 4월 '지방자치단체장 연기' 음모를 꾸미다가 밀각되어 안기부 제1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쫓겨난 자입니다. 그런데 정씨가 안기부법상의 '정치관여죄'로 처벌받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국회의원이 되어 최근의 안기부법 개악을 주도하였다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 없으며 안기부법 개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시민 여러분! 안기부법 개악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이 안기부법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과 귀와 입을 봉쇄해버리겠다는 의도가 바로 안기부법입니다. 국민의 건전한 비판과 정권이 요구하는 주장과 다른, 여타의 새로운 주장이 봉쇄되는 법. 이게 바로 안기부법의 실체이며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질식당하고 우리 조국의 미래는 불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91년 4월 경찰의 쇠파이프에 의해 사망한 명지대생 강경대 열사를 기억하시지요? 열사의 1주기 추모식때 부친이신 강민조 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4.19때 군대에서 장교로 있었는데 대모하는 시위대를 총으로 쏴버리고 싶었다. 또한 80년 5.18 때 무관심했고 87년 6월 항쟁 때는 방관했다. 이러한 나의 방관과 무관심이 내 아들 경대를 죽였다. 만약 내가 그때 열심히 싸워 이 독재권력을 무너뜨렸다면 결코 내 아들 경대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잘못된 정권의 오만한 행동에 대해, 그리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권력 재창출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이 부정한 권력에 대해 시민 여러분도 함께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진정 민주주의가 완성된 나라, 국민의 권리가 무시되지 않는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함께 나섭시다.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심수

- 이글은 지난 1월 9일 민기협 목요집회에서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고상만 간사가 발표한 글입니다.

오늘 산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담 너머 보이는 산은 언제나 제게 따뜻함을 안겨줍니다. 아주 추운 날엔 추운 날대로, 눈이 오는 날엔 눈이 오는 날대로, 그리고 오늘처럼 따뜻한 햇살이 담장안에 넘어왔을 때에도…… 역시 저 산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산도 푸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이곳 홍성에 와서 알았습니다.

산은 언제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제가 있던 그 자리에 있었는데, 겨울산이 푸르다는 사실을 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 이곳 홍성에 이감을 와서 1층집에 살다보니 저 담너머가 보이지도 않고 하늘과 담의 경계선-담평선(?)-만이 보일 뿐이어서 '산이 보이지 않는군' 괜히 실망도 했었는데, 운동시간! 어느 위치에 서니 푸른 산이 빼죽 담장 너머로 보이더란 말입니다. 어찌나 반갑던지요. 근데 제가 진정 반가웠던 것은 산이 아니라 그 산이 머금고 있는 푸르름, 그것이었습니다. 옥담너머로 빼죽빼죽 보이는 나뭇가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까치집이 보입니다. 담이 이렇게 높은데, 그 담위로 보이는 저 나무는 도대체 얼마나 큰걸까? 저렇게 높은 곳에 집을 지어 놓으면 추울 텐데…….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는데 땅위에 서있는 저는 못 느끼지만 하늘위에선 바람이 부나봅니다. 구름이 참 빨리 지나가 버리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흘러가는 그러면서 서서히 변해가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네 역사도 저렇게 바람에 이끌려 변해가면서 흘러가 버리는가…….' 그러다 문득 고개를 흔들어 내가 발딛고 있는 땅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제 '하늘보기'는 끝이 납니다.

선생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은 청춘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조급함에 빠지기도 하고 교만에 젖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 바른 청춘으로 서고자 힘쓰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역사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홍성에서 이해정 올림

- 이해정 씨는 카톨릭대학 성심교정 94학번으로 지난 95년 범청학련 남쪽 대표로 정민주씨와 방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형이 확정되어 지난 11월 홍성교도소로 이감.

분단의 쇠창살을 녹여주는 힘

20세기 이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든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주변을 둘러싼 강대국의 세력다툼 속에서 민족의 주체성을 지켜가며 독특한 문화와 관습을 지켜 나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임금이다 대통령이다 명칭이야 어떻든 민족의 힘을 한군데로 결집시키고 우리의 이익을 중대하여 남들이 넘볼 수 없게 해야 하는데도 백성의 고통은 외면한채 자기들만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대부분이 아니던가. 나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억울한 마음에 땅을 치며 탄식했다.

수없이 외국의 침략을 당하면서 그들에게 속국으로서 치욕을 참아내야 했던 조상들을 원망하기도 했다. 이런 허약한 나라를 절대로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을 하였고 그리하여 얻어진 결론이 하나로 합해도 이웃한 강대국들보다 힘이 약한데 지금처럼 갈라져서는 그들에게 끌려다닐 뿐더러 언제까지나 그 입김에 놀아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민족통합의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사상을 초월하여 민족이라는 수천년을 같은 곳에서 살 아온 단일민족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통일' 만 외쳐도 역적으로 물리곤 했던 때인 68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0년 징역을 살게 되었고 출소후 8년만인 86년에 다시 구속되어 지난 12월 18일 출소할 때까지 11년째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다. 사회가 많이 변화한 만큼 사회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 감옥안 풍경도 해가 갈수록 변해갔다. 68년에 구속되어 10년 10일동안 첫 징역을 살 때 겪어야했던 멸시와 수모는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86년에 다시 갇히게 된 감옥은 많이 달랐다. 찍소리 한마디 못하던 구치소가 범만 되면 핵심 투쟁의 도가니가 되었는데 일반 수형자들까지 합세할 정도였고 눈이 똑바로 박힌 교도관들도 마음속으로 동조하는 빛이 역력하였다.

90년도인가. 대구교도소로 이감을 갔을 때였다.

처음부터 기를 죽이려는 의도인 듯 징벌방인 0.7평 짜리로 밀어 넣는데 징역 보따리는 커녕 한몸 누울 수 조차 없는 좁은 곳이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짐승같은' 처우를 거부하고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그럴 때 민가협 어머니들이 담밖에 오셔서 격려와 교도소를 상대로 연대투쟁을 해 주셨고 그 덕택에 우리는 단식 수십일 만에 그 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미운 사람은 보아서 괴롭고 고운 사람은 못봐서 괴롭다는 말의 뜻을 뼈저리

최선웅



도록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영치금으로 편지로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민가협의 격려와 위로는 장기형을 사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북돋아주는지 겪어본 사람이 아니고는 알기 힘들 것이다. 하루아

침에 장대같은 가장, 또는 아들딸을 감옥으로 보낸 다음 먹고살랴, 악법 철폐 투쟁을 하랴, 옥바라지 하랴, 실로 삼중 사증고를 겪는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지성껏 도와주시는 후원회 여러분들의 뜨거운 마음은 병산처럼 가로놓인 분단의 쇠창살을 녹여주는 힘이다. 담밖에서 공안 정국이 조성되면 담안은 얼어붙고 밖에서 훈풍이 불면 안에서도 꽃이 피는 것이 양심수가 간혀있는 곳의 분위기다.

겨울이 깊어지고 날씨가 더 추워지면 온기한점 없는 창살안 마루바닥에 남겨진 동료 양심수들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 어떤이는 생전 부인에게 편지 한장 받은 적이 없었는데 감옥에 와서야 '연애편지'를 쓰게 되었노라며 쑥스러워 했지만 그분이 쓴 편지의 첫머리는 분홍빛이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아이들 데리고 얼마나 고생이 막심하오! 못난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당신의 정성에 그저 유구무언이오' 그렇게 썼더니 '상여금'이 왔더라면서 허허웃는 그의 눈동자엔 일면 감사하는 마음과 무리해서 보냈을 가족의 형편을 생각하는 근심이 함께 어리는 것이었다.

내준다. 나온다 소문만 무성할 뿐 한해 두해 십년 이십년이 훌쩍 지나고 보면 심신이 지쳐 기운을 차리지 못할때도 민가협 어머니들의 목요집회를 통한 양심수 석방, 악법철폐 투쟁을 줄기차게 해오는 모습과 후원회 소식지에 실린 회원들의 정성을 접하면서 간힌 이들은 얼마나 마음 든든해 하는지 모른다.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짝만한 방에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40년 가까이 징역을 살리는 나라가 여기말고 이 지구상 어디에 또 있을까. 사람이란 다양한 생각을 하는게 당연하고 그런 서로간의 주장속에서 좋은 것은 걸러지고 나쁜 것은 버려지는 것이 역사의 진행이 아니던가. 이제 새해를 맞아 열린 가슴으로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면서 인간사랑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뜨겁게 포옹해보자. 양심수

- 최선웅씨는 1942년 서울출생. 동아대 중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68년 구속되어 78년까지 10년 구금, 1986년 구속되어 1996년 12월 18일 출소.

이런 일이 있었어요

- 12/2 -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개혁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상곤 교수 등)' 소속 교수와 변호사 30여명은 정부종합청사 뒤 동화은행 앞에서 노동법 개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 87년 이후 최초로 교수와 변호사의 공동 거리시위를 벌임.
-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전봉진 부장판사),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순정(범민련)씨에게 4년6월을 선고.
- 3 - 이수성총리 주재 14개 관계부처 장관의 노사 관계 개혁추진위원회에서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등 노동법 개정안 의결.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에 반대해 10쯤 총파업으로 맞서기로 결의.
- 4 - 양심수후원회 12월 운영위원회.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등 협의.
- 5 - 민가협 161회 목요집회. 노동관계법 개정안 부당성, 진보정당추진위 구속자 가족 사례 발표. 어머니들, 연이어 한양대에서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알리는 목요집회를 함.
- 수배자로 오인되어 강제연행된 김형찬(수원 경희대 90학번)씨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항의해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분신기도를 해 하반신에 3도 화상을 입고 강남 순화 병원에 입원치료 중.
- 6 - 사회안전법으로 감호처분 받다 풀려난 출소 장기수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비용(1심과 2심 기각, 상고심이 남음. 상고심 인지대 개인당 45만원)으로 150만원 지원.
- 제주지법 형사합의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활동가 조직 사건)로 구속기소된 제주대 출입생 김용관씨를 직권 석방.
- 7 - 범청학련 통일축전때 경찰 과잉진압으로 부상당한 이상준(25세, 건국대4)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 지법에 내다.
- 8 - 한백렬, 이 종 씨 등 출소장기수 18명은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감호처분을 받았다는 대법원에 상고심 청구.
- 민가협 회원들, 서울구치소로 양심수 면회하고 강남순화병원으로 김형찬 씨 병문안.
- 10 - 광주지검 공안부, 남총련 산하 '민족해방군' 가입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선대생 김영철씨 등 5명에게 혐의 없어 기소유예 석방.
- 11 -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관계법안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
-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20여개 단체 100여명, 안기부법 개정에 반대하는 거리시위를 여의도 신한국 당사 앞에서 벌이다.
- 12 - 경인총련 소속 대학생 13명,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김형찬씨 불법연행, 폭행한 안기부 수사관 처벌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하다 경찰에 모두 연행당함.
- 민가협 목요집회(162회). 세계인권선언일을 주제로 한국교회 인권센타 김경남 목사님 연설, 새하늘 새땅 노래 공연. 한양대에서 시와 노래의 밤 행사와 세계인권선언 내용을 주제로 한 목요집회를 열다.
- 서울지검 북부지청, 통일축전 참가로 불구속

- 기소된 정후영(광운대 4)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 혐의를 추가적용 구속.
- 13 - 한국교회 인권센타,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8 개 인권단체는 김형찬 불법연행, 가혹행위 한 안기부 수사관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 송광영 열사(경원대) 추모비 탈취 뒤 되찾는 일에 온갖 투쟁을 다해 범죄자를 찾아서 경원대 총장의 사과를 받아낸 「송광영 열사 추모비 탈취 대책위원회」 「추모비 탈취 81일」 만에 경원대생과 유가협, 민가협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비를 다시 세우다.
 - 전국농민 2천여명, 여의도광장에서 '쌀 수매 가 인상과 의료보험제 통합을 위한 국민대회' 열다.
- 14 - 민교협, 민변, 참여연대 공동추최, 학단협 주관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토론회 '국가 보안법 필요한가?'가 서초동 변호사 회관에서 열리다.
- 15 - 민가협, 한양대 총학생회 공동주관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여덟 번째 공연이 경찰의 불법방해를 물리치고 한양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8천여 관중이 함께해 성황리에 열리다.
공연준비에서부터 현신해 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16 - 범민련 사건으로 성동구치소에 수감중인 강희남 선생님 면회.
- 한일병원에 입원중이신 박정숙 선생님 문병.
 - 서울고법 형사 합의1부 전두환에게 무기, 노태우에게 17년 형을 선고하는 등 12.12, 5.18 관련 구속자 대부분에게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
- 17 - 민가협,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경실련,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등 많은 단체들이 안기부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과 시위 있다르다.
- 18 - 정기국회 마지막날 신한국당이 안기부법 개정안 처리시도했으나 야당의 저지로 무산.
-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 1000여명이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국회의사당앞에서 벌이다.
 -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를 응징한 박기서씨에 대한 첫재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리다. 박기서씨는 "대의와 정의로서 처단했다"고 말함.
- 19 - 민가협 목요집회(163회), 안기부법 개악 반대를 주제로 열림.
- 범민련 사건 석방자 환경 및 송년모임이 한양대에서 열리다.
- 20 - 김수한 국회의장, 신한국당 요구로 23일부터 182회 임시국회 소집한다고 공고.
- 21 - 「후원회 소식」62호 발송, 늦어서 죄송합니다.
- 「말」1월호를 5곳의 교도소에 발송.
 - 전국연합, 민주노총 공동주최로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 열림.
- 22 - 양심수후원회 96회원 송년모임.
- 전국연합 등 여러단체로 구성된 안기부법 개정반대 대책위원회, 명동일대에서 거리캠페인.
 - 서울고법 특별10부, 보안관찰 대상자로 되어 있는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가 낸 '출국금지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처분을 정지시킴.

- 23 -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제7조 5항)로 구속기소되어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던 이창복 전국 연합 상임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다.
- 24 - 법무부 성탄절 맞아 788명을 가석방. 이날 가석방된 양심수는 단 1명인데 만기출소 20여일을 남기고 있는 김용태(납북어부사건)씨.
- 안기부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기도한 김형찬 씨, 안기부 수사관 4명을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한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내다.
- 25 - 경북 영천경찰서, 추수가 인상 등을 요구하는 농민대회를 열었던 전농 경북도연맹 의장 우익규씨를 폭력시위 혐의로 구속.
- 26 - 신한국당, 새벽 6시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등 11개 법안을 단 6여분만에 날치기 처리.
- 민가협 목요집회(164회),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등 11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신한국당 규탄.
 - 민주노총,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처리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는 총파업 돌입.
 - 명동성당에서 노동관계법 대책위원회 주최로 날치기 규탄대회 4000여명 모임. 민족민주운동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학계, 법조계, 잇단 규탄성명 이어지다.
 - 양심수들에게 새해인사 연하장 보냄.
- 27 - 민가협 회원들, 서울구치소에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스님 면회.
- 정의구현사제단,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날치기 처리와 관련 시국기도회 명동성당에서 갖다.
-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 36만 노동자 파업에 합류. 전국 13개 도시에서 정권퇴진 결의대회.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15,000여명 여의도 광장에서 규탄집회.
- 28 -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대책위 주최, 날치기 처리 규탄 집회. 종묘공원에 2만여명이 참석. 명동성당까지 거리시위 하려하였으나 경찰의 무자비한 죄루탄 난사로 삼삼오오 다른길로 명동성당에 모여 규탄집회 갖다.
- 지하철, 병원노련 등 노동자 파업 확산.
- 29 - 182개 노조, 22만3천여 노동자 파업. 여의도 광장에서 2만여 노동자, 시민 규탄집회.
- 30 - 연고가 없는 출소 장기수 선생님 14분에게 생활 지원금 드림.
- 낙성대 만남의 집에 생활지원금 드림
 - 민교협, 종로성당 규탄집회 동대문까지 거리 행진.
 - 민주노총, 서울역 집회. 민변, 농성돌입.
 - 전국 구치소, 교도소에 구금중인 양심수에게 영치금을 보냄(1차).
 - 미국수도장로교회의 양심수 자녀돕기 성금을 김태룡 씨, 서경원 전 의원 자녀에게 전달해 드림.
 - 장가협에 지원금을 전달함.
- 31 - 명동성당에서 종각까지 행진. 경찰 저지선 뚫고 새해종 울림. 양심수

회원 여러분 지난 한해 애쓰셨습니다

- 미국수도장로교회 신앙공동체에서 장기구금 양심수의 겨울용품 구입을 위하여 800달러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한의사협회 청년회 모임 길호식 회장 외 5분이 12월 8일, 낙성대 만남의 집을 방문해 선생님들 한방진료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16일 전립선 비대증으로 보라매병원에 입원하신 정순택 선생님께서 26일, 퇴원하셨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 이천재(회원, 범민련 남측본부 상임부의장)님 아드님께서 14일, 황건(전 4월혁명연구소장)님의 큰 아드님이 21일 각각 회축을 밝혔습니다. 축하합니다.
- 경북 문경의 박문성 회원께서 1,200,000원의 큰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 윤선희(부천 부부약국)회원이 혼례를 올리셨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 유영순(「후원회소식」기자) 회원이 지난 12월 19일, 둘째아들 승우를 낳았답니다. 아기와 엄마 모두 건강하세요.
- 박성희(26세, 미혼, 회사원)회원이 62호부터 「후원회소식」기자로 애써주시기로 했습니다. 박 기자의 저돌적인 인터뷰, 조심하세요!
- 정은숙(세종대 성악과 교수·문익환 목사님의 큰 며느님)님 등께서 양심수 겨울나기를 위해 조끼 10벌을 손수 짜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이귀애, 서우영 회원이 용산전자상가 옆에 생선초밥 전문점을 개업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주문배달 714-0364 '회전식 초밥랜드'

감옥에서 새해연하장을 보내주셨습니다

● 학생 양심수

정현철(안양, 목포대) 김영덕(대전, 충남대 민족활동가조직사건) 양동훈(강릉, 94년 남총련 의장) 김광일(영등포교, 천안 단국대) 이철희(영등포교, 천안 단국대) 윤영광(영등포교, 조선대) 조달현(영등포교, 동국대) 최재혁(영등포교, 중앙대) 이종명(진주, 경상대)

● 장기구금 양심수(햇수는 구급년수)

우용각(대전, 40년) 김인수(대전, 36년) 홍명기(대구, 36년) 최수일(광주, 33년) 리경찬(광주, 33년) 이공순(광주, 31년) 오형식(대구, 29년) 이재룡(광주, 26년) 류정식(안동, 23년) 조상록(안동, 20년) 진창식(전주, 19년) 손성모(전주, 17년) 손유형(전주, 17년) 박동운(대구, 16년) 김정묵(대구, 16년) 안승윤(대구, 16년) 박수관(대구, 15년) 김병주(안동, 15년) 이상철(광주, 15년) 함주명(광주, 15년)

박찬우(전주, 14년) 문철태(전주, 13년) 이장형(안동, 13년) 신풍수(전주, 13년) 황대권(대구, 13년)

● 재야 및 기타

현정덕(목포) 김기수(목포) 은수미(강릉, 이상 사노맹 사건) 안재구(대전) 박화국(군산) 이영기(목포) 홍중희(청주) 장진성(수원, 이상 구국전위 사건) 손병선(전주) 최호경(대구) 양홍관(광주) 심금섭(안동) 조덕원(군산, 이상 민예전 사건) 안윤정(대전, 독일유학생 사건) 김병권(청주, 범민련 사건) 김효섭(전주, 일본관련) 박영생(서울, 전노련) 양연수(안양, 전국빈민연합) 이재용(서울, 애청 사건)

● 노동자 양심수

이정영(목포, 신일금속 전 노조 위원장)

양심수후원회 96 송년모임이 있었습니다

한인숙(서대문구 창천동)
 신지남(부천시 원종동)
 손임선(관악구 신림12동)
 박정순(종로구 동숭동)
 이종대(안양시 달암동)
 권은경(동대문구 회기동)
 전민기(도봉구 창4동)
 조현웅(관악구 봉천동)
 백대진(고양시 백석동)
 강선희(인천시 구월동)
 김은정(인천시 창영동)
 유현미(은평구 신사2동)
 강윤모(종로구 낙원동)
 김제성(광명시 광명동)
 나윤경(광주시 서석동)

보람도 아쉬움도 함께 있었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더 큰 다짐과 희망으로 힘찬 새해를 맞기 위한 96 송년모임이 12월 22일, 회원 여러분과 손님들 16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광화문 '세서울'에서 있었습니다. 투병중인 이 종, 권양섭 선생님께서 못오셔 아쉬움도 있었지만 최남규, 김석형, 신현칠 선생님을 비롯, 서울과 지방에서 출소 장기수 선생님들이 오셨고 임기란, 정양엽, 임선순 님등 민가협 어머니들과 박정기 회장 등 유가협의 여러 어른, 윤성식, 황건 님을 비롯한 4월혁명연구소 여러분, 서상호, 김영옥 님 등 민자통 여러분이 오셨고 이기형 님(시인), 남정현 님(작가), 김진균 님(서울대 교수, 지식인연대 대표), 김금수 님(후원회 지도위원, 노동사회연구소장) 장기표 님(신문명정책연구원장) 등 여러 손님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모임 1부는 이기옥(변호사) 운영위원의 사회로 인사말씀, 오신분 소개, 고현희 회원이 선생님께 드리는 글과 신현칠 선생님이 좋은 말씀을, 이정현 회원이 어머니께 드리는 글과 임기란 어머니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기형 선생님의 새해덕담에 이어 신창균 선생님의 선창으로 통일과 양심수 없는 세상과 건강을 위한 전배로써 조촐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2부는 모성룡 회원의 사회로 홍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처 연락드리지 못한 회원 여러분들께는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1월 진행

97년 정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통과로 민주주의를 빼앗긴 듯한

허탈한 마음으로 시작된 새해지만

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싸움의 합성이 다시

새해의 희망을 갖게 합니다.

북한산에 함께 올라 답답한 가슴, 활짝 펴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그리운 얼굴들을 보듬어봅시다.

언제 : 97년 1월 19일(일) 이른 10시

어디로 : 북한산(평창동-일선사-보현봉-대동문-우이동)

모이는 곳 : 평창동 북아파크 앞(올림피아 호텔 맞은편)

버스노선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8, 좌석 522번

준비물 : 도시락, 따뜻한 물, 회비 3,000원

이 겨울, 가슴 따뜻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1958년에 체포되어 40년동안 편지한장, 면회한번 없이
차디찬 독방에 외롭게 구금되어 있는 '세계최장기수' 우용각 노인(69세).
그는 찬바람 불면 더 심해지는 얼굴신경이 마비되는 증세로
이제는 말한마디도, 밥 한술 떠넣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남에 살고있는 89세의 고봉희 어머니는
홀로 한걸음 폐기도 어려운 늙은 몸을 이끌고
대전까지 아들(신인영, 31년째 구금중) 면회를 갑니다.
31년이 이르도록 끌이 안보이는 면회길.
그러나 작은 소원하나 안고 갑니다.
"내가 죽기전에 우리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여줄 수 있을까."

올해 다섯살난 명지의 엄마 차정원씨.
첫 아이를 나온지 3일만에 감옥으로 끌려간 남편을 기다리며
초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에 합격해
'선생님'이 되고싶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으로 구속되었다고 느닷없이 임용을 거부당해
생계도 막막해지고 오랜 꿈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언제 이 어머니와 아들이, 남편과 아내가, 아빠와 딸이 만날 수 있을까요.
누구와 함께 양심수를 가두는 이 시대의 아픔을, 가족들의 그리움과 고통을,
양심수들의 간힌 꿈과 희망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요.
이 겨울, 우리는 가슴 따뜻한 사람을 찾습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3,40년 넘도록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 있던 장기수들에
게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합니다.
 - 20 ~ 30년의 삶을 감옥에 묻어 두고 옥밖으로 나오신
무연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머물 곳
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기타 자신의 처지에 맞는 여러 형태의 후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용하실 송금구좌
- | | | |
|------|-----------------|------------|
| 제일은행 | 128-10-201180 | (양심수후원회 권) |
| 신탁은행 | 15701-1213703 | (양심수후원회) |
| 국민은행 | 006-01-0601-098 | (권오현양심수후원) |
| 농협 | 053-01-112692 | (권오현양심수) |
| 지로번호 | 7619407 | |